



## 위안화 환율 상승세 멈춤, 절상기대 사라짐

왕양비 연구원

- 그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달러/위안 환율이 12월 7일까지 6거래일 연속 하루 하락 제한폭인 0.5%에 달한 하락세를 나타냄.
  - 미국 등 선진국의 위안화절상 압력과 중국경제에 관한 낙관적 전망으로 위안화가 강세를 유지하였음.
  - 올해 들어 위안화대비 달러 환율이 4.1% 상승했고 2005년 환율개혁 이후 누적 상승폭이 30%를 초과했는데, 11월 30일부터 6거래일 연속 하락함.
  - 중국 인민은행이 시장의 위안화 약세기대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연속 5일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 거래일 증가보다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제한폭에 달한 하락세가 멈추지 않았음.
  - 홍콩과 내륙 외환시장에서 달러 확보에 대한 쟁탈이 치열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며, 10월 중국외국 환평형기금이 4년 만에 249억 위안(약 39억 달러)의 순감소를 기록하는 등 해외투자자금 및 핫머니의 급유출이 나타나고 있음.
  
- 11월 미국 실업률이 9.0%에서 8.6%로 하락하여 경제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, 수출 증가세 둔화와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외국인 자본 유출의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됨.
  - 수출부진에 따라 11월 중국 제조업 신규 주문량이 전년동월대비 18% 하락하였으며, 9~11월 주 택가격은 전월대비 3달 연속 하락하고 하락폭도 커지는 것으로 보임(-0.05%, -0.23%, -0.28%).
  
- 중국 경제성장 둔화 우려로 인해 위안화 절상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, 미국 상원이 위안화절상 압박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위안화 환율이 완전 시장화 될 경우 하락할 수도 있다는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반박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.

(증권시보, 제일재경일보, 금융계, 12/06 등)